

# 2022 November 그룹사 NEWS

1

##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 임직원 걷기 챌린지 대회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룹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걷기 챌린지'가 개최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힘찬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현대에서 미래로, 한마음 걷기 챌린지를 마련했으며, 그룹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챌린지는 11월 16일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경기도 판교에 들어설 현대중공업그룹 글로벌R&D센터(GRC)까지 340km 구간을 18개 코스로 나눠 임직원 10명씩 이어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이상 울산),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 현대오일뱅크(충남 대산),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천) 등 전국에 위치한 12개 그룹사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챌린지도 함께 진행한다.



2

## 현대중공업

### 메탄올추진선·FSRU 등 친환경 선박 2조 원 수주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월 4일 덴마크 머스크(Maersk)로부터 총 1조 6,201억 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1만 7천 TEU급인 이 컨테이너선은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이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은 미국 엑셀러레이트 에너지(Excelerate Energy)와 4,757억 원 규모의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 1척을 수주했다.

17만 m³급인 이 LNG-FSRU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저장했다가 필요 시 재기화해 육상에 직접 공급하는 '바다 위의 해상 기지'로, 기존 LNG선에 해양플랜트 수준의 화공기술을 접목해 건조된다. 이 선박은 LNG이중 연료엔진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며, 오는 2026년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3

## 현대일렉트릭

### 조석 사장,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조석 사장이 품질경영 선진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을 받았다. 조석 사장은 10월 21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품질상 시상식'에서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품질경영학회는 국가 산업발전과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경영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0년 현대중공업그룹 최초의 외부 출신 대표로 영입된 조석 사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에너지, 산업정책, 통상 분야를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다. 현대일렉트릭은 조 사장 취임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후로도 건조한 실적을 유지하며 종합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석 사장은 "기본에 충실한 품질 방침과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통해 현대일렉트릭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4

## 현대제뉴인



###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3사,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3사(현대제뉴인,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유럽에서 열린 대형 전시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섰다. 현대제뉴인,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설기계 박람회인 'BAUMA 2022'(이하 바우마) 전시부스에서 글로벌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독일 바우마 전시회는 세계 3대 건설기계 박람회 중 하나로, 올해 전 세계 약 6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 부산세계박람회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3사는 2023년 11월 개최지가 선정될때까지 대륙별 국제 전시회를 포함, 다방면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5

## 현대삼호중공업



### 로이드 선급과 배관검사 개선 업무협약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0월 14일 지원관 3층 QM 회의실에서 로이드(LR) 선급과 배관검사 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지원 부문장 이준혁 상무와 로이드 극동아시아 운영총괄 이채호 부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위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현장 작업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현재 사내 복관습에 적용하고 있는 NCRS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외 배관 제작습 확대 적용을 위한 NCRS 검사관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